



산티아고 순례자의묵상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도록 저를 도우소서.

cucopescador@gmail.com

1.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주님, 오직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20분, 혹은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풍요로워지겠습니다.

저의 기쁨과 고통을 말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필요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성상을 마주칠 때마다 이러한 저의 의도들을 도와주실것을 청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꿈과 희망과 제 삶의 계획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념을 주소서.

저의 믿음이나 부족한 믿음에 대해 또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삶과 본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Evangelio(the Gospel)의 페이지들을 읽는 것은 유익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념을 알려주시옵고, 그에 응답하소서.

2. 알베르케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겠으며, 관리인에게 예의를 갖출것입니다.

요구하지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내삶의 번덕스러움과 어리석은 바램들을 내려놓을 시간임을 인지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내가 가고있는 이길에서 내삶을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주방과 샤워실에서는 양보하고 방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고 더 많이 들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나 알아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San Pablo(St Paul)의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받는것 보다 주는것이 더 큰 기쁨이니라."

3.이른 저녁, 많지는 않지만 열려있는 교회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시간을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식이나 미사(최후의 만찬을 반복하고 있는)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영성체(성체와 성혈)를 받기 위해서는 성당과 같은 천주교에 속하고 사제와 함께 할 것이며, 회개한 자이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교인이 아니거나 회개하지 않고 영성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그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4.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신념을 확인하고 교회든 성당이든

성직자(Santiago는 12사도들 중 한명이었습니다.)를 찾도록 노력하고

기독교나 종교적 삶, 나의 실패와 기쁨들, 문제와 염려와 의심들 그리고 실수들을

상담하겠습니다.내가 배울 수 있거나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말할 수 있을때 걱정거리들의 상당부분이 상쇄 될 수 있음을

마음에 되내일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톨릭 교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실패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좀 더 나아질수있도록 열망하는 새로운 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5.나는 이제, 배낭의 적은 무게로 이 길을 걷는 것이 낫다는 것과

인생의 순례도 이와 같음을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이 길에서, 혹은 이길의 끝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한 기부를 하겠으며, 이로써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은 주님이심을 증명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사도 산티아고, 이 길에 함께 하소서.

